

검사 급증에 폭염·민원...광주 선별진료소는 오늘도 사투 중

코로나19 7개월...방역 최일선 광주 선별진료소 가보니



지난 1일 오후 광주 북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왼쪽). 2일 북구보건소 선별진료소 직원이 착용한 페이스시ールド가 입김으로 뿌려진다. /최현배·김진수 기자 choi@kwangju.co.kr

213일, 광주에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2월 3일 이후 보건소 선별진료소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날이다. 5개 보건소 선별진료소 공무원들은 7개월째 감염병 최일선에서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 장마가 끝난 뒤로는 폭염에 맞서 땀 흘린 방역복으로 중무장을 하고 폭증하는 검사자 대응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매달 초과근무 시간만 평균 300시간이 넘는다. 연차를 쓸 생각은 엄두조차 못냈다고 한다. 오죽하면 어린 아들이 "엄마 보내달라고 보건소장 아저씨한테 전화하겠다"고 떼를 쓸까. 보건소 선별진료소 공무원들의 7개월의 일상을 들여봤다. 그들은 오늘도 최일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

검체채취 사투
매달 수백시간 초과근무에 가족 얼굴도 보기 힘들어
무더위와 사투
방호복·마스크·고글 쓰고 땀범벅 근무 피로감 더해
민원인과 사투
이기적인 민원에 시달리고 음주 행패에 공포감 느끼기도

◇방역복으로 중무장...폭염·무더위와 사투=선별진료소 직원들은 매일 방역복으로 중무장을 하고 검사자들을 만난다. 직원들은 체온도 33도를 웃도는 무더위를 버티며 땀방울이 내리쬐는 야외에서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여야 한다. 검사대 기자들을 한명씩 대하다보면 마스크·고글·장갑·방호복까지 땀으로 흠뻑 젖기 일쑤다. 방호복이 바람 한 점 통하지 않아 땀 흡수가 잘 되는 기능성 옷을 갖춰 입어도 소용이 없다. 특히 검사 받으러 오는 시민들이 많은 날에는 무더위 속에 대기 시간이 길어지게 하지 않으려면 더 바쁘게 움직여야 한다. 흐르는 땀을 닦아내면서 숨 돌릴 여유를 갖기 어렵다는 것이다.

해도 동선이 겹쳤거나 발열·인후통 등의 심 증상이 있어야만 검사가 가능했지만 "다들 해주거나 나도해달라"며 생떼를 부리면서 10분 넘게 진료를 방해했다. 유흥주점발(發) 집단 감염이 발생했을 때 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 직원들은 신원을 비밀로 해줄 수 있느냐는 문의전화를 설새없이 받았다. 당시 광주시는 서구지역 유흥주점 방문자와 종사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을 것을 행정명령 내렸다. "선별진료소를 찾은 관련 검사자들은 무기명 검사가 맞는지, 비실명으로 검사가 가능한지를 재차 확인한 뒤 검사를 받는가 하면, 비슷한 질문과 확인전화를 해 직원들이 웅대하느라 힘들었다"는 게 서구보건소측 설명이다. 동구보건소 선별진료소 직원들은 힘든 검체 채취 경험과 관련, 지난 7월 어린이 집에 다니는 남매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모든 어린이집 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때를 떠올렸다. 성인의 경우 빠르면 10초 이내에 검체 채취가 이뤄지지만, 7세 미만의 어린 아이들은 막연한 공포감을 보이며 검사에 어려움이 커 부모들과 함께 아이들을 달랠때와 검사장을 벗어나 도망가는 아이들도 많았다는 게 동구보건소 관계자 설명이다. 검사자들 중 확진자가 많았으니 이렇거나도 감염되는 것 아니냐는 공포감은 때때로 쉽게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특히 지난 8월 순천선별진료소 직원이 근무 중 감염됐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는 절망했다고 했다. 평소에도 의료진 앞에 두고 재채기를 하거나 기침을 하는 시민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북구보건소 관계자는 "검사를 하는 순간,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면 순간 놀라는데, 두렵다면 아무 것도 하지 못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쏟아지는 검사 대기자들...처리 안간힘=2일 광주시와 5개구에 따르면 광주시내 선별진료소와 수탁기관 등이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채취한 코로나19 검체는 12만 7582건에 이른다. 첫 확진자가 나온 2월 1800건의 검사자들에서 검체를 채취한 것을 시작으로, 5600건(3월)→ 6000건(4월)→ 7300건(5월)→ 1만2000건(6월)→ 6만1000건(7월) 등으로 폭증했다. 감염이 확진자들의 발생을 막았다며 지난 7월 11일 이후 검체 채취를 완화해 모든 유증상자들에 대한 검체 채취가 시작되는데, 금양오피스텔·광주사랑교회·일곡중앙교회·아가페 실버센터·한울요양원, 배드민턴 동호회, 휴대전화 판매업체, 광주고시학원, 사우나 등에서 감염이 확산하면서 검사량도 급등했다. 지난달에도 유흥주점·성림침례교회·동광주탁구클럽·광화문 집회 등과 관련된 감염 확산으로 3만3000건에 이르는 검사자들의 검체 채취가 이뤄졌다. 지난달 21일에는 5개 선별진료소의 하루 검체 채취 건수가 3205건으로 치솟았다. 광주지역 하루 검체 채취 건수로는 가장 많은 수치였다. 선별진료소 직원들은 무더위에 검사를 기다리는 대기자들을 달래며 처리하느라 사투를 벌여야 했다. 북구의 경우 성림침례교회와 동광주탁구클럽 발(發) 집단 감염으로 지난달 27일 1521건의 검사자 검체를 채취, 하루 최다를 기록했고 서구에서는 유흥주점발 집단감염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지난달 21일 검사자들로부터 805건의 검체를 채취한 게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근무 시간도 아예 사라진 지 오래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새벽 퇴근이 일상화됐다. 북구보건소 직원 129명의 초과근무시간은 지난 2월부터 6개월 간 1명 당 351시간에 달한다. 300시간이 넘는 초과근무를 하는 감염병팀 공무원들은 그래도 말없이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버텨낸다. 검사가 매일 쏟아지고 비상 상황이다보니, 연차를 사용할 생각조차 할 겨를이 없다. 보건소 감염병팀 직원은 "엄마 얼굴 못보게 한다면 보건소장 아저씨에게 전화하겠다고 떼를 쓰는 4살짜리 아이를 달래느라 힘들었다"며 웃었다.

보통 한 번 벗으면 재사용할 수 없어 화장실 가려고 벗는 것조차 하지 않으려고 물 한모금도 마시지 않고 근무중에는 선별진료소를 떠나지 않는다고 한다. 선별진료소 근무가 끝나더라도 다른 업무가 많으니 땀으로 범벅이 된 옷을 입고 실내 근무를 하는 날도 흔하다. 북구보건소 관계자는 "하루 평균 사용하는 방호복은 50여벌로 지난 7개월간 1000벌이 넘는 방호복을 사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공포 이겨내며 물지각한 민원인 응대=고군분투=쉬지도 못하고 고군분투 중인 선별진료소 직원들은 악성 민원인들로 힘이 빠질 때가 많다. 기분 나쁘다고 방역요원들에게 비협조적이거나 술에 취해 막무가내로 반말하면서 검사를 요구하는가 하면, 욕설을 퍼붓고 물리력을 행사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50대 남성은 지난 7월 오전부터 만취한 채 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체 채취를 요구하며 행패를 부려 여성 진료소 근무자들을 공포에 떨게했다. 당시만

해도 동선이 겹쳤거나 발열·인후통 등의 심 증상이 있어야만 검사가 가능했지만 "다들 해주거나 나도해달라"며 생떼를 부리면서 10분 넘게 진료를 방해했다. 유흥주점발(發) 집단 감염이 발생했을 때 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 직원들은 신원을 비밀로 해줄 수 있느냐는 문의전화를 설새없이 받았다. 당시 광주시는 서구지역 유흥주점 방문자와 종사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을 것을 행정명령 내렸다. "선별진료소를 찾은 관련 검사자들은 무기명 검사가 맞는지, 비실명으로 검사가 가능한지를 재차 확인한 뒤 검사를 받는가 하면, 비슷한 질문과 확인전화를 해 직원들이 웅대하느라 힘들었다"는 게 서구보건소측 설명이다. 동구보건소 선별진료소 직원들은 힘든 검체 채취 경험과 관련, 지난 7월 어린이 집에 다니는 남매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모든 어린이집 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때를 떠올렸다. 성인의 경우 빠르면 10초 이내에 검체 채취가 이뤄지지만, 7세 미만의 어린 아이들은 막연한 공포감을 보이며 검사에 어려움이 커 부모들과 함께 아이들을 달랠때와 검사장을 벗어나 도망가는 아이들도 많았다는 게 동구보건소 관계자 설명이다. 검사자들 중 확진자가 많았으니 이렇거나도 감염되는 것 아니냐는 공포감은 때때로 쉽게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특히 지난 8월 순천선별진료소 직원이 근무 중 감염됐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는 절망했다고 했다. 평소에도 의료진 앞에 두고 재채기를 하거나 기침을 하는 시민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북구보건소 관계자는 "검사를 하는 순간,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면 순간 놀라는데, 두렵다면 아무 것도 하지 못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잇따르고 유흥시설 방문했다 코로나 확진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는 상황에서 방역 최일선에 서야 할 공직자들의 일탈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2일 광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A 광주광산경찰서장은 지난 8월 21일 일행들과 광주시 서구 풍암동 주점을 찾아 부적절한 행태로 물의를 빚은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유흥주점발 코로나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불필요한 모임·행사 및 밀폐된 공간 출입 등을 자제해달라는 방역당국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던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A서장 처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A서장은 "코로나19로 엄중한 상황에

코로나 이 와중에...공직자들 잇단 일탈 광산경찰서장 주점서 부적절 행위 물의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잇따르고 유흥시설 방문했다 코로나 확진

경찰 고위 간부가 술집을 찾는 등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광주시 산하 공기업인 김대중컨벤션센터 직원도 방역 당국의 권고를 따르지 않고 유흥시설을 방문한 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직원은 유흥주점 방문자들에 대한 의무적인 검사 행정명령도 지키지 않다가 뒤늦게 드러나면서 방역 정책의 혼선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직원의 확진판정으로 광주시장, 교육감 등 행정 수뇌부가 검사를 받는 등 업무에도 영향을 미쳤다. 음주사고도 잇따라 화순경찰 소속 경위는 지난달 18일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냈고 장흥군 공무원은 음주운전을 하다 차에서 잠이 들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경찰 고위 간부가 술집을 찾는 등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광주시 산하 공기업인 김대중컨벤션센터 직원도 방역 당국의 권고를 따르지 않고 유흥시설을 방문한 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직원은 유흥주점 방문자들에 대한 의무적인 검사 행정명령도 지키지 않다가 뒤늦게 드러나면서 방역 정책의 혼선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직원의 확진판정으로 광주시장, 교육감 등 행정 수뇌부가 검사를 받는 등 업무에도 영향을 미쳤다. 음주사고도 잇따라 화순경찰 소속 경위는 지난달 18일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냈고 장흥군 공무원은 음주운전을 하다 차에서 잠이 들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두환 비서' 유포자 불기소 불복...이용섭 시장 재정신청 기각

이용섭 광주시장이 자신을 '전두환 비서 출신'이라고 SNS 등에 주장한 유포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광주고등법원 형사 4부(수석부장판사 최인규)는 이용섭 시장이 낸 재정신청을 지난달 31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재정(裁定)신청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에 대해 고소인이 불복, 직접 고등법원에 재판 회부를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공소 제기를 결정하고 죄명과 공소사실이 특정될 수 있도록 이유를 기재한다.

앞서 이 시장은 자신의 전두환 정권 시절 청와대 근무 경력을 놓고 '전두환 비서 출신'이라고 주장하며 SNS 등에 올려 명예 훼손했다며 고(故) 안병하 치안감 기념사업회 사무총장 이모(53)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이 시장은 법원에 기소 여부를 다시 검토해 달라는 재정신청을 냈었다. 재판부는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경찰, 양향자 의원 선거캠프 관계자 4명 기소 의견 불구속 송치

경찰이 불법 전화방을 설치하고 전화홍보원을 동원해 특정 국회의원 후보의 선거운동을 했다는 사건을 마무리하고 검찰로 넘겼다. 고소장이 접수된 지 무려 5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했지만 특정 후보와 연관성이 없다며 기소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광주서부경찰은 2일 당내 경선과정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양향자의원 선거캠프 관계자 4명을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구의회 A의원 등 4명은 민주당 당내 경선과정을 앞둔 지난 2월부터 3월 초까지 당원과 지역주민들에게 전화를 걸어 양향자 의원의 지지를 호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시 당원 등에게 직접 전화를 거는 방식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선거 캠프와 무관한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는 양 후보측 주장에도,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A의원 등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방식으로 수사를 벌였지만 양 의원의 관련성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지난 1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역민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양향자 후보 후원회장 의혹 관련 수사는 아직 마무리를 하지 못한 채 진행중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